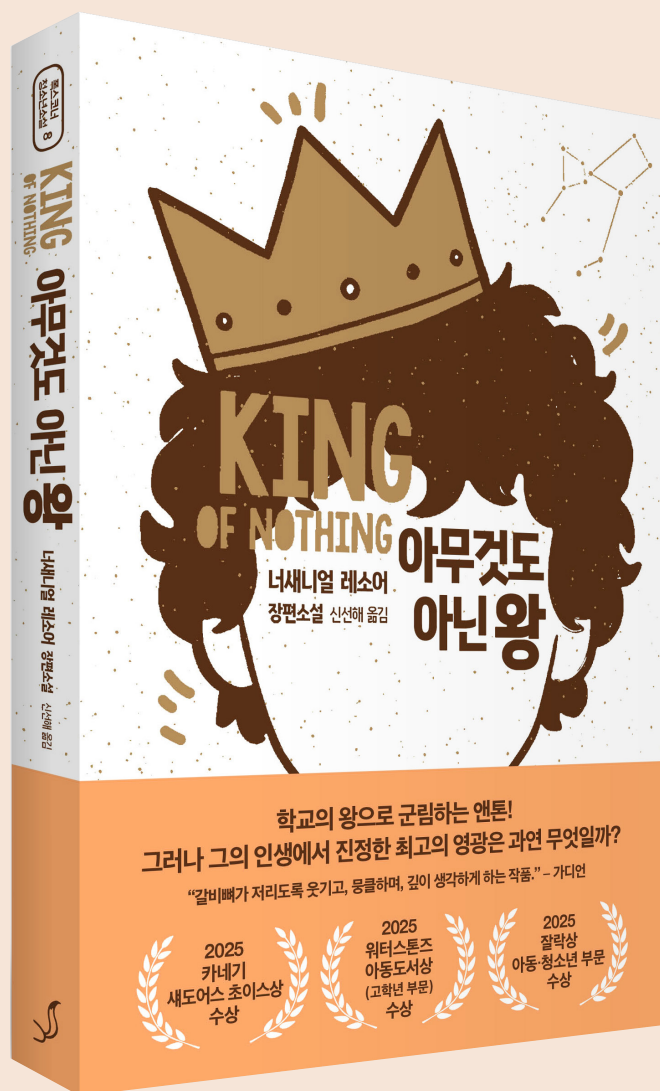


아무것도 아닌 왕

너새니얼 레소어 장편소설

신선해 옮김

폭스코너 펴냄



■ 책 소개

앤튼 찰스는 학교 안팎을 마음껏 활보하는 ‘일진 패거리’의 우두머리다. 아버지가 폭력 범죄로 수감되면서 얻게 된 ‘아무도 감히 맞설 수 없는 학교의 왕’이라는 지위는 자신이 가진 거의 유일한 자부심이다. 패거리를 이뤄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앤튼과 친구들(케헌데, 케일럽, 마커스)은 서로를 부추기며 그 명성을 공고히 지키려 한다. 그러자면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어떠한 시비에서든 위력을 과시해야 하고, 선생님들의 말도 무시해야 하며, 만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 하지만 엄마와 외할머니랑 셋이 살고 있는 집에선 앤튼은 철부지 사고뭉치 아들이고 손자일 뿐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엄마와 크게 부딪친 후 인터넷 한 달 금지라는 벌을 받게 된다.

엄마는 앤튼에게 인터넷 사용을 다시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봉사 동아리 ‘해피 캠퍼스’에 매주 참여할 것과 지역 리모델링 프로젝트 ‘세인트 루크스’의 일을 도울 것을 강요한다. 마지못해 참여한 ‘해피 캠퍼스’ 모임에서 앤튼은 학교의 ‘공식 찌파’ 매튜와 같은 팀이 되고, 심지어 캠핑까지 함께 가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얽히게 되는데…….

학교의 왕으로 군림하는 일진 소년과 반 아이들 모두가 무시하는 ‘공식 찌파’ 소년의 뜻밖의 우정을 통해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 고민을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낸 청소년소설.

■ 저자 소개

너새니얼 레소어 Nathanael Lessore

영국 런던 남동부 캠버웰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마다가스카르 출신 어머니 사이의 8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사우스런던의 펙엄에서 보냈지만, 프랑스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싱가포르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다. 이스트런던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뒤 마케팅 전문가로 일했다. 2024년 첫 장편소설 『Steady for This』로 브랜퍼드 보즈상(Branford Boase Award)을 수상하고 카네기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이후 출간한 『아무것도 아닌 왕(King of Nothing)』으로 2025년 주요 아동문학상을 모두 휩쓸며 명실상부한 신예 작가로 떠올랐다.

옮긴이_신선해

영미권 도서 번역가. 원저자의 문체와 의도를 최대한 살리면서 한국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을 추구한다.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 『건지 감자껍질과이 북클럽』 『티처: 벨몬트 아카데미의 연쇄 살인』 『블레이드』 시리즈 등 소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번역했고, 지은 책으로는 『어른의 맞춤법』이 있다.

■ 활동 목표

1.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계를 살피며 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등장인물 간의 상호 작용을 따라가며 참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고정관념’과 ‘나다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4. 인간의 삶에서 ‘선택’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인공의 선택을 응원할 수 있다.

📖 책을 읽기 전에!

- 『아무것도 아닌 왕』은 영국의 중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과 인물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짚고 넘어갑시다.

■ 『아무것도 아닌 왕』의 주인공 앤톤과 친구들은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영국의 Year 9(9학년)에 재학 중이며, 다음 학년(10학년)부터 시작되는 GCSE 과정을 위해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아무것도 아닌 왕』에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다음> 사람의 특징을 써 보세요.

<다음>

▶ 좋은 사람 :

▶ 강한 사람 :

▶ 물렁한 사람 :

▶ 쿨한 사람 :

※ 책을 읽은 후에 위의 내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주인공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에 밑줄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왕』을 읽어 보세요.

chapter 1 앤톤과 주변 사람들

- 등장인물의 특성과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며 『아무것도 아닌 왕』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빈 곳에 써 보세요.

① 앤톤 :

가족		친구		선생님	
② 엄마	예) 남편 없이도 앤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키웠다. 앤톤의 장래를 위해서 그를 해피 캠퍼스에 보낸다. 집안일 뿐만 아니라 세인트 루크스동네 회관을 여성 보호 시설로 만드는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최선을 다한다.	⑤ 케히데		⑧ 월	앤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앤톤에게 GCSE의 선택 과목을 고민해 보라는 숙제를 내준다.
③ 할머니		⑥ 매튜		⑨ 조슈아	
④ 아빠		⑦ 로셀	길게 땀은 단정한 머리를 하고 근사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 제일의 모범생. 말을 직설적으로 밝힌 하지만 친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따뜻한 소녀.		

2. 주인공 앤톤을 중심으로 인물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관계를 알아보세요.

① 앤톤

앤톤이 운동장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앤톤 ↔ 엄마

앤톤이 해피 캠퍼스를 가게 된 이유를 앤톤과 엄마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③ 앤톤 ↔ 할머니

앤톤에게 할머니는 어떤 존재인지, 할머니와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④ 앤톤 ↔ 아빠

아빠가 출소한 후 앤톤이 아빠의 만남 제의에 응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빠를 만난 후 앤톤의 아빠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⑤ 앤톤 ↔ 케힌데

앤톤이 케힌데에게 해피 캠퍼스와 매튜에 대한 이야기를 숨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⑥ 앤톤 ↔ 매튜

앤톤의 매튜에 대한 생각은 해피 캠퍼스 캠핑 전과 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⑦ 앤톤 ↔ 로셀

앤톤을 대놓고 노려보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던 로셀이 앤톤을 응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⑧ 앤튼 ↔ 교장 선생님 월

과학 수업 시간에 복도로 쫓겨난 앤튼을 만난 교장 선생님 월은 앤튼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었나요? 그리고 다음 상담 시간까지 GCSE 선택 과목을 생각해 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⑨ 앤튼 ↔ 성평등 강사 조슈아

앤튼이 케힌테에게서 들었던 ‘남자다움’과 성평등 강사 조슈아를 통해 알게 된 ‘남자다움’은 어떻게 다른가요?

chapter 2 내 베프는 너야

- 책을 읽고 참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아래 자료와 질문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의 우정을 살펴보세요.

(가) “저기…….”

뒤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반 공식 짝마인 매튜가 케일럽을 앞질러 가려는 모양이다. 애도 과학 수업에 늦었다.

“이 좇만 한 게 어딜!

케힌데가 욕박지르며 막아선다. 난 비켜 주라고 한다. 매튜는 평일의 공영방송 같은 놈이다. 애가 좀 맛이 갔다. _책 38~39쪽 중

당연히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매튜 녀석이 끼는 바람에 골치 아픈 변수가 생겼다. 학교의 왕이 세상 찌질한 루저한테 걸려들면 내 명성은 그대로 땅바닥에 패대기쳐진다. 제아무리 우리 패거리라 해도 이걸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_책 74쪽 중

(나) 나는? SNS에 할머니 사진을 한 장 올리고 캡션으로 짧게 ‘RIP’를 남겼다. 동정이나 관심을 바란 건 아니다. 그냥 내 피드에 할머니를 영원히 박제해 두고 싶었다. 케힌데도 마커스도 케일럽도 연락 한 통 없다. 학교에는 소식이 전해진 걸 안다. 엄마가 직접 전화했으니까. 매튜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하나 오긴 했지만 난 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모든 게 너무나 아프다. _책 288쪽 중

매튜가 바닐라 시럽을 듬뿍 넣은 아이스 모카를 가져다준다. 난 일단 질색하며 치우라고 하지만, 막상 마셔 보니 의외로 맛있다. 녀석은 내가 어떤지 묻지 않는다. 애가 유일하다. 해피 캠퍼스의 다른 애들은 다 나를 보면 슬프고 잔한 표정을 짓는다. 매튜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얘기할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들어 주겠다고 했다. _책 290쪽 중

(다) 교장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진다.

“잘 들어.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다. (중략)

“내가 너라면 누구와 어울려 지내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어. 그냥 조언이다. 상담 일정 잡으면 알려 줄 테니 선택 과목은 뭐로 할지 충분히 생각해 봐. 그리고 앤튼?” _책 48쪽 중

(라) 그리고 나는 녀석이 오래전부터 기다려 온 말을 한다.

“넌 내 베프다, 매튜.”

녀석은 퐁퐁 부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본다. _책 320쪽 중

① 앤톤은 해피 캠퍼스 캠핑을 가기 전에 매튜에 대해 (가)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가)의 밑줄 부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야기해 보세요.

② 앤톤이 해피 캠퍼스 캠핑에서 매튜와 함께 겪은 일과 그때 앤톤이 매튜에 대해 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캠핑에서 겪은 일	매튜에 대한 생각
예) 매튜와 버디가 되어 한 텐트를 쓰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좋은 일이란 실상 없으니까.’
예) 매튜와 단둘이 열매 채집을 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평소 교실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지내는 찌따 녀석이 여기서는 이렇게나 수다스럽고 자신만만하며 웃기도 잘 웃는다. 이제 보니 녀석은 루저가 아니라 그냥 외톨이인 것 같다.’

③ (나)를 토대로 앤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케힌데와 매튜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④ 교장 선생님 월이 앤톤에게 (다)의 밑줄친 부분과 같은 조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⑤ (라)에서 앤톤이 매튜를 ‘베프’라고 인정하게 된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2. 아래 자료를 참고로 다양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함께 있으면 서로 즐거운 우정, 일상생활에 서로 도움이 되는 우정, 서로 존경하는 우정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인간사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봤다. 교실에서 ‘우정’이 가득하면,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수업은 활기가 넘칠 것이다. 인성 교육의 나침반은 ‘우정이 가득한 교실 만들기’를 가리켜야 한다.

로마 웅변가이자 정치가 ‘키케로’는 “신들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우정”이라고 했다. “우정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모든 사물에 관한, 선의와 호감을 결집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이며 상호 호혜적 관계이다.” 우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졌다는 뜻이다.

선물을 잘 간직할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는 선물 받은 사람의 태도와 결정에 달렸다. 이미 하늘에서는 인간에게 선물을 보냈고 결정은 인간의 몫이다.

또한 키케로는 ‘우정에 관하여’에서 “친구 간의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살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자네가 마치 자네 자신과 말하듯 무엇이든 마음껏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만큼 감미로운 일이 또 있겠는가? 자네가 번영을 누릴 때 자네 못지않게 그것을 기뻐해 줄 누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가? 자네가 고통스러울 때 자네 자신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운은 그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네”라고 했다.

고통에 대한 괴로움보다 그 고통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키케로는 역설했다.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_ [칼럼] 박주희 박사의 교육 산책, 조선일보, 2026년 03월 31일, 발췌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가지 우정은 무엇인가요?

② 세 가지 우정 중 내가 맺고 싶은 우정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chapter 3 상냥함은 나약한 게 아니야

- 등장인물의 다양한 주관을 살펴보고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질문에 답하며 다른 견해나 관점을 살펴보세요.

- ① 책에서 아래 어휘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가진 생각을 찾아 써 보세요.

물렁함	예) 앤튼: “자전거 탈 때 헬멧 쓰는 거.”
진짜 남자	예) 매튜: “진짜 남자라면 도움을 받아들이길 줄도 알아야지.”
쿨함	

- ②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등장인물의 생각을 비교하고 내 생각을 완성해 보세요.

<보기>

나는 (물렁함)에 대해 (앤튼)의 생각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물렁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조심하기 때문이다. (물렁함)의 다른 예는 ‘아침마다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

🔗 나는 ()에 대해 ()의 생각에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 사람은 때문이다. () 다른 예에는 ‘ _____ ’이 있다.

- ③ 앤튼의 입장이 되어 아래 매튜의 질문에 대해 답해 보세요.

매튜: “내가 물렁하다는 얘기는 확실히 상대적이야.”

잠시 후 다시 녀석이 말한다.

Q 매튜: “그러니까 결국 물렁하다는 말 자체가 주관적인 거네.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지?”

A 앤튼: “몰라. 인싸들? 사회? 됐어, 뭐 상관. _책 119쪽 중

A 나:

2. 책 168~174 쪽을 다시 읽고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① 성평등 전문가 조슈아 니코스와의 대화에서 각 어휘에 대한 설명을 찾아 써 보세요.

어휘	의미
성평등	
성차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는 건
가부장제 사회	여성의 필요가 항상 남성과 동등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는 뜻
유해한 남성성	

② ‘가부장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성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내가 알고 있는 ‘유해한 남성성’의 예를 들어보세요.

④ 조슈아 선생님과 아이들의 대화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 나는 _____에 대해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_____

⑤ 조슈아 선생님의 아래 질문에 내 생각을 말해 보세요.

Q: “여러분은 ‘남자다움’이란 걸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A: _____

⑥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자, 그럼 가기 전에 한마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갈 것을 고르라면 이거예요.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_책 173쪽 중

[illegible]

- 책을 통해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아래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매튜는 창밖을 내다본다. 표정이 어둡다. 내가 자기를 흡혈귀로 변신시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단 내 모습 그대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너 같은 경우엔 그거 안 먹혀.” _책 139쪽 중

(나) “그게 있지, 난 개 질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난 걔 상냥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건 별로 상냥하지 않은 것 같거든. 항상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걔 웃게 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질투심 유발한다고 못되게 구는 건 아니거든. 다른 애가 널 좋아하는 게 개 맘에 들 수도 있지. 난 말이야, 무계획으로 가서는 네가 잘하는 괴상한 소리나 지껄여 대서 걔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말로 안 상냥한 행동이라고 본다. 난 시행착오를 거치자는 거고.” _책 177~178쪽 중

(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귀엔 다 개소리로 들린다. 안 먹히는 때가 없기는 개뿔. 그런 수법에 넘어가기엔 여자들은 훨씬 똑똑하고, 그런 취급을 당할 이유도 없다. 로셀한테 그런 짓은 절대로, 시도조차 안 할 테다. 그러고 보니 매튜한테도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었다. 비록 결국엔 보기 좋게 망했지만,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냥하고 진솔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매튜의 생각이 사실은 옳았던 거다. 젠장. 녀석한테 사과해야겠다. _책 217쪽 중

(데) 거울 속 제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던 매튜가 내 얘길 듣자마자 미소가 사라진다. 이제는 자기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지 티셔츠를 보며 인상을 쓴다.

“좀 과한가? 아무래도 다 벗는 게 낫겠지?”

내가 냉큼 그러라고 하기도 전에 로셀이 혀를 찹, 차고 말한다.

“매튜, 넌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매력이 넘치는걸. 옷이 사람의 진짜 본모습을 바꿀 순 없어. 장미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장미인 것처럼, 매튜는 다른 옷을 입어도 매튜인 거야.” _책 261~262쪽 중

(ㄹ) 우리 옛말에 ‘아름’이라는 말은 ‘나, 개인’이라는 의미였다. ‘아름’을 중세 국어에서 찾아보면 ‘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사람답다, 나답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생각에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잘 발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귀한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다운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다. 자신을 가장 가치있게 만드는 게 아름다운 거다. _조현웅 『우리말 선물』, 마라북스

① (가)와 (나)를 참고로 앤톤과 매튜가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② 앤톤이 (대)의 밑줄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나는 앤톤과 매튜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나요?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④ 로셀이 (래)의 밑줄처럼 이야기한 이유를 (마)를 참고로 설명해 보세요.

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쇼펜하우어의 말을 참고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안의 고유한 즐거움을 찾는 일이다.”

_ 쇼펜하우어

“인생은 짧아, 앤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야. 매 순간의 선택을 합친 게 인생이거든.”

엄마 말대로다. 한 사람이 순간순간 내린 결정을 종합해 보면, 그가 살아온 인생이 마치 지도처럼 한눈에 보인다. _책 308쪽 중

-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아래 질문에 답하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가) “이제껏 아빠의 평행우주 버전 같은 인간이 되려고 얼마나 기를 썼는데. 달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지. 결국 난 모두를 실망시킬 거야.”

“아냐, 네가 틀렸어.”

매튜가 너무나 단호하게 말해서 난 흠칫 놀란다. 녀석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내 말에 반박하는 건 처음이다.

“네 미래는 네가 정하는 거야, 앤튼. 아빠를 따라야 할 본보기로 삼든지, 반대로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는 본보기로 삼든지.” _책 226쪽 중

(나)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학교 애들은 나나 이 녀석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천만에, 존중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우리가 무서웠던 것뿐이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난 질렸다. 더는 누가 날 무서워하는 게 싫다. 날 좋아해 주고, 진짜 친구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매튜와 로셀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과 친하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 없이 마음 편히 어울리고 싶다. 어차피 학교의 왕 노릇도 몇 년 안 남았다. 그다음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니 난 어릿광대들에 둘러싸인 폭군으로 남느니 진짜 친구들을 곁에 둔 채 아무것도 아닌 왕이 되는 쪽을 택하겠다. _책 297쪽 중

(다) “내년이 꽤 즐거울 거다, 앤튼.”

“네, 교장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안 돼. ‘그릴 거다’여야지.”

한숨이 나온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다”는 건 그저 희망일 뿐이야. 처칠도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지 ‘해변에서 싸울 것 같습니다’라곤 안 했어. 바람과 확신은 엄연히 다르단다.”

_책 248~249쪽 중

① (가)와 (나)를 참고로 앤튼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의 밑줄친 부분을 참고하여 앤튼의 선택을 확신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②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앤튼의 다짐처럼 나의 선택을 확신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2. 달라진 앤톤을 응원하며 앤톤의 하루가 담긴 「에필로그」를 다시 써 봅시다.

에필로그

방학 전 마지막 학기, 내 학교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